

기아차 신형 'K5 하이브리드' 타 보니 ...

급가속 반복해도 연비 22.6km/ℓ ... 연료 아끼는 재미 솔솔

시승에 앞서 지난 11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마주한 K5 하이브리드의 모습은 기존 1세대 K5 하이브리드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디자인이었다. K5의 두 얼굴 중에서 SX(Sporty Extreme)보다는 MX(Modern Extreme)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기존 1세대 K5부터 이어온 완성도 높은 디자인에 품격을 갖춘 이미지의 '친환경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이다. 기아차 디자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코 그릴'에 기존 그물망 형식의 그릴 대신 외장형 '액티브 에어 플랩(Active Air Flap)'이 적용됐다. 이번 K5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외장형 액티브 에어 플랩은 엔진 냉각수 온도, 차량 속도, 공조 작동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공기 흡입구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스템으로 공기 흡입구가 닫히면 공기의 흐름이 그릴을 타고 보닛으로 흐르기 때문에 공기 저항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제작사의 설명이다.

시승은 기아차 광주공장을 출발해 담양 가사문학관 일대를 거쳐 돌아오는 왕복 60km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시승 차량은 K5 하이브리드 2.0 노블레스 A/T 기본형으로 스노우 화이트펄 색상의 매끈한 녀석이었다.

본격적인 시승을 위해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 버튼을 눌렀다. 하이브리드의 특성답게 시동이 걸린다는 소리도 없어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을 통해 시동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아차 측에서 알려준 연비 운전 방법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변속레버를 D로 옮기고 서서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뺐다. 초반 저속 주행 시 전기모터만으로 주행이 되어서 그런지 마치 중립 상태로 시동을 끈 일반 가솔린 차량이 언덕길 아래로 중력을 따라 미끄러지듯 볼 흐르듯 차가 이동했다.

잠시 전기차 주행모드가 주는 고요함을 만끽하고, 무릎산 자락에 돌입하면서 가속 페달을 지긋이 눌렀더니 생각보다 거침없는 초반 가속 성능이 놀랐다. 전기모터는 일반 엔진 기준으로 보면 디젤보다 높은 약 20.9kg·m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몸으로 느껴졌다.

고연비와 친환경이라는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점을 가능한 많이 느껴보고자 시승 동안 멀리 보고 급하게 감속, 가속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광주일보 김대성 기자가 지난 11일 담양 가사문학관 앞 도로에서 최근 출시한 기아차 신형 'K5 하이브리드'를 직접 주행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시동걸 때 조용하고 승차감 뛰어나 주행 성능 부드러워 타종보다 월등 38kw 전기모터 동력 기대 이상

특히 새롭게 추가된 '관성주행 시스템'은 주요 지점에서 내비게이션 그래픽을 통해 운전자에게 가속 페달 해제 시점을 미리 알려줘 연비 주행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중간 중간 '에너지 흐름도'를 체크해봤다. 풀클러의 LCD 수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은 이번 시승 내 연비 지킴이의 중요한 도우미가 됐다. 에너지 흐름도를 보며 지속적으로 내 운전 상태를 확연히 운행

을 하다 보면 어느새 경제운전마스터가 돼 있는 것 같았다.

연비 주행을 마치고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연비 최우선' 자동차의 한계를 시험해볼 요량이었다. 동력은 어떻게 공급했다.

이를 느껴보기 위해 가속 페달을 깊숙이 눌러 넣었다. 차내에선 "워~잉" 하고 들릴 듯 말듯 하던 전기모터소리에 가상엔진음을 더한 소리를 순간 "부

웅"하는 목직한 엔진소리가 덮여며 차가 급가속하기 시작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힘이 좀 덜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38kW의 모터가 첨가해주는 동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또한 저속주행, 급가속, 정속주행 등 다양한 주행 조건 속에서 차를 운전했을 때의 전기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적절한 전환과 혼용이 매우 매끄러워 일부러 주의를 기울여 느껴보려고 하지 않으면 좀처럼 느끼기 쉽지 않았다. 하이브리드를 위한 전용 변속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준비된 코스를 따라 약 1시간 가량 주행했는데 기를 거의 안 쓴 것 같다. 사실 차를 주행하다 보면 주행상황에 따라 연비가 공인연비와 차이가 좀 나기 마련인데 시승을 마치고 보니 평균연비가 무려 22.6km/ℓ나 나온다. 고속으로 주행한 도로가 있다고 해도 중간 중간 성능 테스트도 했던걸 생각하면 한

마디로 놀란다.

신형 K5 하이브리드는 차분할 땐 차분하게 또 격렬할 땐 격렬할 줄 아는 센스있는 주행감성뿐 아니라 ▲차량이 운전자의 방향 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보음을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각종 카메라와 레이더의 정보를 종합해 선행차량 및 보행자에 대해 급제동 상황 또는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전방 충돌상황 발생 시 브레이크 작동을 보조하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주행 중 후측방 사각지대의 차량과 후측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보하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 프리미엄 세단 못지않은 편의사양이 탑재된 운전 중 편의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기아차 내년 830만대 판다

친환경차·K7 앞세워 국내외시장 공략
사상 최대 목표 ... 올해보다 10만대 늘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경기 악화에도 신차 등을 앞세워 내년에 830만대를 판매한다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 목표로 올해 목표보다도 10만대나 늘린 것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내년에 총 830만대를 국내 및 해외에서 팔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내년 1월4일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에서 열린 시무식 행사에서 내년도 경영 화두와 함께 이란 내용의 사업 목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내년 830만대를 팔기로 목표를 정하고 최근 관련 후속 작업을 벌이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목표 830만대 판매는 현대차가 506만5000대, 기아차가 323만5000대다.

현대차는 내년에 국내에서 186만6000대, 해외에서 319만9000대, 기아차는 국내에서 162만3000대, 해외에서 161만2000대를 판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신형 시장 등에서의 부진으로 판매 목표를 낮춰 잡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품질력을 갖춘 신차와 대내외 호평을 바탕으로 국내외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판매 목표 830만대는 올해 목표치인 820만대보다 10만대 늘어난 수치다.

올해의 경우 경기 부진 등으로 800만대 판매를 조금 넘을 것을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올해보다 30여만대를 더 팔겠다는 목표를 세운 셈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면 현대기아차는 3년 연속 800만대 이상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보통 국내에서 출시된 뒤

6개월이 지나면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팔리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도 호재가 적지 않다.

우선 내년 초에 기아차 K7이 출시된다. 아울러 친환경 전용차인 현대차 아이오닉과 기아차 니로가 나온다. 최근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다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준중형차라는 점에서 대량 판매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스포티지 등 신차가 올해 상반기에도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